시리즈 강자들의 귀환

韓-코미디의 자존심 '강철중-' 부활

美-액션 어드벤쳐 '인디아나 존스 4'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3, 4월 비수기를 지나면서 극장가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일 개봉한 '아이언맨'은 400만명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고, 가수 비가 출연한 워쇼스키 형제의 '스피드 레이서'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오랜 세월 시리즈로 제작돼 많은 인기를 누렸던 '시리즈물'도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9년만에 돌아온 '인디아나 존스'와 한국 코미디의 자존심 '공공의 적'이다.

▲존스 박사, 19년만에 컴백하다

낡은 가죽 재킷과 땀에 절은 셔츠, 카키색 중절모, 채찍이 트레이드 마크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19년만에 돌아왔다. 시리즈 4편인 '인디아나 존스 :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을 통해서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40대~50대 관객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액션 어드벤쳐 무비다.

첫 시리즈인 1981년 작 '레이더스'에서 30대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해리슨 포드가 이제는 65세의 노인이 돼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메가폰을 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을 맡았던 조지 루카스도 함께다.

3편인 '최후의 성전'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된 리버 피닉스가 해리슨 포드의 어린시절을, 숀 코너리가 아버지 역을 맡아 화제가 됐었다. 시리즈 4편에는 새로운 피가 수혈됐다. '트랜스포머'의 히로인 샤이아 라보프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기파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여성 악당 역을 맡았다.

영화는 고고학자 존스 박사가 고고학계의 최고(最古) 보물로 기록될 아카토르의 수정해골을 찾아 페루의 오지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디 일행은 모험 과정에서 세계 정복을 위해 수정해골을 손에 넣으려는 이리나 스팔코가 이끄는 소련 특수 첩보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된다. 〈5월 22일 개봉〉

▲무대포 꼴통 형사 '강철중'

올해 흥행에 성공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나 '추격자'는 사실 예상치 못한 대박 영화였다. 충무로의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작품은 '강철중-공공의 적 1-1'이다.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줄줄이 대기한 상태에서 '강철중'의 어깨는 단연 무거워 보인다.

이성재가 악역을 맡았던 '공공의 적2'와 강철중이 검사로 출연했던 '공공의 적 3'의 연장선상이라기 보다는 부제

'무대포 형사 강철중'을 전면에 내세운 공공의 적 4 '강철중-공공의 적 1-1'

'1-1'에서 알 수 있듯, 시리즈 1편의 '무대포 형사 강철중'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다.

강우석 감독이 여전히 메가폰을 잡고 시리즈물에 연속 출연했던 설경구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새롭게 장착된 엔진은 '장진'이다. 희곡작가, 연극 연출가로 이름을 날린 장진은 충무로에 입성, '킬러들의 수다', '거룩한 계보', '박수칠 때 떠나라' 등의 작품을 통해 영화감독으로도 만만찮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장진은 이번에 '강철중'의 시나리오를 맡아 강우석 감독과 호흡을 맞췄다. 또 강철중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는 연기파 배우 정재영이 합류했다.

'강철중'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탄탄한 조연들이다. 시리즈에서 강철중의 상관역을 맡았던 강신일, 강철중에게 계속 얻어맞는 '산수' 역할로 눈도장을 찍었던 이문식과 '쌍칼' 유해진 등 이제는 충무로를 대표하는 '주연급'으로 우뚝 선 배우들이 모두 출연한다. 〈6월 개봉 예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낡은 가죽 재킷과 땀에 절은 셔츠, 카키색 중절모, 채찍이 트레이드 마크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시리즈 4편인 '인디아나 존스 :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으로 19년만에 돌아왔다.

'인디 피크닉 2008' 광주 나들이

광주극장서 22일까지 '오월상생' 등 28편 상영

서울독립영화제 순회 상영회인 '인디 피크닉 2008'이 2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한국독립영화협회와 영화진흥위원회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2007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과 특별상영작 등 모두 28편을 상영한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오월상생'. 2007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오월상생'은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민주 햇살' 등 민중가요 5곡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한 작품이다.

'오월상생'

그밖에 수상작으로는 대상을 받은 김진만 감독의 '소이연'을 비롯, 이강길 감독의 '살기 위하여=-어부로 살고 싶다', 장형윤 감독의 '무림일검의 사생활', 김영제 감독의 '알게 될거야', 권상준 감독의 '투수, 타자를 만나다' 등 10편이 상영된다.

특별 상영작은 '가족을 위한 단편선'('밥묵자', '천년 기린', '아이들은 잠시 외출했을 뿐이다'), '경계 허물기'('목욕, 올드랭사인, 불한당들'),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적의 사과', '새끼 여우' 등), '핸드메이드 필름'('동면', '기록' 등)으로 나눠 선보인다.

특히 2007 올해의 독립영화로 윤성호 감독의 '은하해방전선'과 문정현 감독의 '할매꽃'도 관객들을 찾아가며 '관객 리뷰 공모전-인디 피크닉, 숨은 보물 찾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페벤시 남매들이 마법의 힘을 빌려 다시 나니아 세계로 들어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페넬로피	'돼지코' 여인의 동화같은 사랑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스피드 레이서	비의 할리우드 데뷔작.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고'를 원작으로 한 오락물.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명탐정 코난: 베이커가의 망령	14년 넘게 연재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 만화인 '명탐정 코난'을 원작으로 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서울이 보이냐	'집으로'의 유승호가 엄마를 찾아 서울로 떠난다.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첨단)	
아이언 맨	마블코믹스의 원작 만화 아이언맨을 SF 액션 장르로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가루지기	봉태규 주연의 부실한 청년 新변강쇠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하남), 하미, 엔터	
비스티 보이즈	유흥가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호튼	작고 여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 이야기. 차태현이 호튼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하미	
포비든 킹덤	중국 액션배우 성룡, 이연걸 주연의 무술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테이큰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스트리트 킹	키아누 리브스가 형사로 출연해 LA의 밤과 낮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18세 이상 관람가.
하미, 엔터	
킬 위드 미	살인현장이 UCC로 생중계 되는 스릴러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엔터	